

사진으로 보는 광주 '노랑나비 새벽에 날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 10월 6일 개관



10월 6일 광주시립사진전시관으로 재개관하는 광주시립미술관 옛 건물.

시립미술관 옛 건물 리모델링 공립미술관 전국 첫 사례 예향의 사람, 의향의 정신 한말~5·18까지 광주 전시

지난 1992년 8월 준공한 광주시립미술관 옛 건물은 문예회관과 더불어 광주 대표 문화예술공간이었다. 하지만 2007년 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약 10년간 빈 공간으로 방치되며 황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광주시립미술관이 옛 건물을 사진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전문전시관은 서울 한미사진미술관,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등 사진만 있고 공립은 없는 상황이었다.

시립미술관은 1차로 1층 전시실(562㎡)을 리모델링해 사진전문전시실을 만들고 추후 2·3전시실도 탈바꿈한다는 방침이었다. 손조롭지는 않았다. 올해 초 개관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를 겪으며 차질피워 미뤄졌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이하 사진전시관)이 10월 6일 드디어 시민들을 찾아온다.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운영되며 공립으로는 전국 처음이다.

시립미술관은 27일 오후 1전시실을 개관한 후 내년 2·3전시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1전시실은 대관·기획 전시, 2전시실은 상설전시, 3전시실은 교육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시관은 남도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연구·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만큼 매체 미술로서 사진을 다루고 현시대와 자연을 기록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개관전은 '노랑나비는 새벽에 날다'를 주제로 광주와 예술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로 준비했다. 2017년 1월 15일까지 열린다.

'노랑나비는 새벽에 날다'에서 노랑나비는 민주주의를 상징한다. 나비가 새벽을 향해 날아감으로써 밝음이 오는 모습을 통해 민주도시 광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에는 도입부와 광주 예술가 모습을 보여주는 '예향의 사람',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는 '의향의 정신'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주제 '예향의 사람'에서는 한국화 대가 허백련 화백, 서양화 오지호, 판소리 임방울, 문학 박용철 등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가 왜 예향으로 불리는지 사진을 통해 설명한다.

1939년 촬영한 제1회 연진화원전 개막 기념사진부터 허백련, 오지호 등이 현자리에 모인 1960년대 예술인들의 모임까지 보기 드문 사진을 출품한다. 또 양수아, 오지호, 임직순 화백 야유회 모습, 명장대회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한 임방울 명장도 볼 수 있다. 시가지지를 바라보는 김현승 시인, 동료들과 기념촬영 중인 박용철 시인, 2012년 세상을 떠난 공옥진 명인의 춤췄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의향의 정신'에서는 동학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광주 정신을 선보인다. 굳은 표정의 전봉준, 일본군에게 체포된 호남 의병, 1920년대 3·1만세운동으로 투옥된 수피아 여고 학생들, 1931년 6월 16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학생들이 출옥을 기념해 찍은 사진도 있다. 또한 1960년 광주 3·15 장승 시위, 도청 분수대 주위로 수천명이 모인 5·18 항전, 해방 이후 사직공원에서 바라 본 광주 시가지도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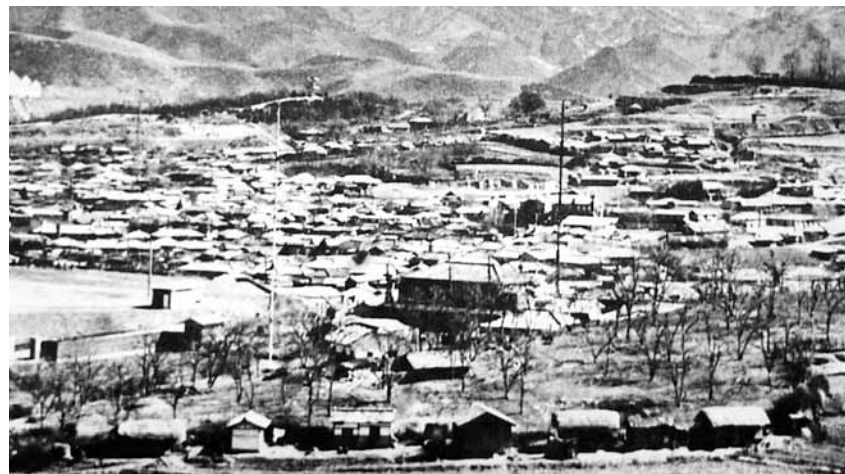
사진전시관이 개관되기는 하지만 갈 길이 멀어보인다. 현재 개관전만 준비됐을 뿐 아카이브 확보, 인력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립미술관은 지난달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학예연구1과를 학예연구실로, 학예연구2과는 분관으로, 교육홍보과는 교육창작지원과로 변경했다. 사진전시관을 담당하는 분관은 상록전시관, 서울 갤러리GMA 운영도 함께 맡고 있어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사진전문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여서 개관을 하게 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920년대 3·1만세운동으로 투옥됐던 광주 수피아여고 학생들.



1956년 광주시 남구 월산동 덕림산에서 촬영한 시가지.



1960년대 야유회를 하는 양수아(왼쪽 세번째부터), 오지호, 임직순 화백.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에서 시가지지를 바라보는 김현승 시인.



광주 여성문화난장 '살림'

광주여성재단, 30일 금남로에서 ... 체험프로그램 다채

'우리 같이 살자'는 의미를 담은 살림 축제를 즐겨보자.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오는 30일 오후 2시~6시 광주 금남로 2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 일대에서 제5회 '2016광주여성문화난장'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한국어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한국어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등 주요 여성 관련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광주여성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축제 총감독은 김규리씨가 맡았다.

축제 주제는 '살림'으로 '살'과 '살리다', '우리 같이 살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 나의 삶에서부터 가정살림을 거쳐 여성에서 출발하는 환경적·사회적 가치의 재생까지 '살려내고 살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큐브 형태의 체험부스 20여개가 들어서며 큐브 중앙에 대형큐브에서는 개·페막 퍼포먼스와 공공설치작품 만들기 등이 열린다.

김규리 광주M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축제에서는 CNS금관 5중주와 광주

여성필하모닉의 공연이 펼쳐지며 '살림-나를 찾아오'를 테마로 해 기원 담은 메시지 공공설치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난타, 가곡, 퓨전국악, 한국무용, 통기타 등 지역 여성소모임 7개팀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프로그램은 ▲정치하는 여자 ▲마음 읽어주는 여자 ▲색을 찾아주는 여자 ▲음악하는 여자 ▲춤추는 여자 ▲그릇 만드는 여자 ▲디저트 만드는 여자 ▲차 만드는 여자 ▲떡 만드는 여자 ▲커피 볶는 여자 ▲돋봄을 실천하는 여자 ▲폭력예방을 외치는 여자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치하는 여자' 코너에서는 광주 시·구 의원들이 정치에 관한 소통을 시도하고, '커피 볶는 여자' 코너에서는 '커피볶는집' 이영숙 대표가 스물 여섯 젊은 나이에 커피 빠져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주게 된다. 이외에도 여성소모임 활동가들의 다문화 음식, 천연염색, 우드버닝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교육과 재즈밴드 '더 블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장바구니와 파우치, 컵홀더 등 선물도 선착순 증정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향 '로프코비츠 공의 저택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등

30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박중해

1807년 2월 27일, 베토벤은 자신의 전폭적인 후원자였던 로프코비츠 공의 저택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로프코비츠 가문은 베토벤을 후원하며 베토벤 그 만의 음악을 하도록 권한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조건 없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공기로 가득했던 1807년 로프코비츠 공의 저택 풍경을 만날 수 있다. 30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향의 11시 음악회 '로프코비츠 공의 저택에서'를 통해서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베토벤의 '코리알란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4번', '교향곡 4번'

이다. 레퍼토리는 모두 로프코비츠 공 저택 리 연주회에서 공연했던 프로그램으로 특히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이곳에서 베토벤 자신의 독주로 초연됐다.

지휘는 광주시향 김영언 상임부지휘자가 맡으며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박중해씨가 함께한다. 박씨는 2008년 제4회 나고야 국제 음악 콩쿠르 최연소 2위 입상, 2010년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수상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피아니스트이다. 전석 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음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